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利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內地在留朝鮮學生指導問題

一

學務當局에서는 內地各學校에 在學中인 朝鮮人學生을 積極的으로 指導監督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얼마전부터 그具體案을 硏究中이던바 이지음 大體로原案이成立되었으므로 文部省과 中央協和會와에 이案을提示檢討한後 그具體化에 努力하기로되었다는데 傳하는學務局案의 主要點은 (一)東京에 朝鮮人學生을 收容할學生會館을지을것 (二)朝鮮人學生이 多數在學하여잇는私立大學, 專門校에 指導監督을할 專任主事를 常置할것 (三)總督府東京出張所에 內地在留學生을 指導할 專任職員을 常置할것, (四)文部省에도 이가튼 專任職員을 常置케할것, (五)從來比較的等閑視하던 入學資格을嚴重히 審査하고 또 學資關係思想關係도 充分히調査하도록할것 等으로 當局에서는 이와 倂行하여 朝鮮內에 大學專門程度學校의 新增設도 積極的으로 考慮할方針이라고한다。

二

從來까지도 各學校當局에서 朝鮮人學生의 指導監督을 全然實行하여오지안흔것은아니엇스나 그監督은 大概가思想方面에局限되고 人格的薰陶方面은 全然缺如되어 朝鮮人學生中에는 間或放縱한生活을일삼어 學業을 게을리하고 또는思想的으로도 左翼的傾向에흐르는者가생기여 相當히 만흔問題를 비저낸것이 事實이다 今番總督府에서 朝鮮人學生指導監督에 注力하려함도 그原因이 이가튼傾向을 矯正하여 所期한學業에만 專心하게함으로써 忠良한國民으로 指導하려는데잇다고 볼바로서 朝鮮人學生會館을 建設하려함은 從來問題가 되든 下宿問題를 解決하려함이오 또 朝鮮人學生이 만히잇는 大學과專門學校에 專任主事를 常設하려함은 學生들의 勤怠와 思想傾向을 살피어 學徒로서의 本分을 지키게하려는게 아닌가한다 何如튼 學生에對한 指導가必要한것은 두말할것도업스나 指導의 要點은 指導方法如何에따라 善導도될수잇고 또는 그反對의結果를 齎來할수도 잇다 然則 當局에서는 그들을 指導함에잇서서 지나친 警戒的態度를 버리고 人格的으로 指導하여 內心으로써 指導者의 指導에 服從하도록하는方法을取하여야할것이다。

三

在留學生指導監督에는 勿論入學資格嚴重審査와 思想學資關係等調査가 必要한것은 事實일지나 아직까지 中學을겨우卒業한 思想未定한 靑年들을 律함에잇서서 思想關係를 넘우나 重視하는것은 그들의思想을 善導하려는敎育의根本意義에잇서서 矛盾이생길 憂慮가만코 또學資關係를 重視함도 그程度에따라서는 도리어 意外의弊端을비저낼 念慮가업지도안을것이다 朝鮮人學生이 不遠千里하고 負笈從師 玄海灘을 건너가는것은 朝鮮內에는 中學大學專門學校施設이 不足하여 入學하려 하여도 할수 업서서 不得已 가는것으로 그들은 朝鮮內에서 드는 學費보다도 만흔 費用을 犧牲하면서 內地學校에 入學하는것이다 따라서 朝鮮內에 中學 大學 專門程度 學校施設이 擴充되지 안는限 朝鮮人學生은 漸漸 增加될 現狀이며 그들에게 從來보다 難澁한 入學條件을 부치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中等以上敎育의길을 밟을 機會를 일케하는 逆結果를 내게 될것이다 따라서 當局은 朝鮮內 學校施設의 擴充을 期하는 同時에 入學志願者를 適當히 容易하게하여 從來보다 容易히 入學하게하여 그들에게 배움의 前途를 열어주는 同時에 그들의 前途를 指導하여 그릇된 外道에 흐르지안토록하기를바란다。一方그들의就職問題까지 解決해주게된다면 써 그들을 指導한다면 當局은 所期以上의成果를 거둘것을 미더마지안는다。

明年度一般會計豫算 七十億圓突破豫想

各省要求槪算書提出完了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은 議會의 休會後再開期日을 關聯한 結果 特히 急히 할必要가 잇스므로 大藏省에 對하여 槪算書要求期日을 一般會計는 八月三十一日 特別會計는 八月二十日로 定하여 嚴守를 要望해왓는바 各省에서도 이에 協力하여 一般會計豫算은 若干의 款項을 除한 外에는 陸海軍豫算을 爲始 各省要求豫算이 十日午後에 이르러 全部모엿다 그러나 要求豫算의 特色을 보건대 聖戰下第四年째의 戰時豫算으로서

一、國防充實
二、生産力擴充
三、輸出振興
四、銃後施設

이것을 主眼으로하고 이外에 災害對策 農村對策 土木行政費等이 計上되어잇고 更히豫算編成技術上 今年度와가치 巨額의追加豫算計上을 避하고 全部本豫算에 計上要求하기로되엇스므로 明年度新規要求豫算額은 實로 三十五、六億圓의 巨額에 達하고잇다 그리고 昨年度基準豫算은 今年度追加豫算으로서 計上된 陸海軍新規防衛의 年度分 其他를加算하면 二十四、五億圓에 達할것으로 보이므로 結局明年度要求豫算은 一般會計만해도 七十億圓假量의 膨大豫算이될터로 大藏省主計局에서는 各省主計當局으로부터 要求豫算의 說明을 聽取하는 同時에 豫算의 施行上의 基礎가될 明年度物資計劃勞務計劃에 對하여 企畫院과 協議하여 九月上旬부터 査定에 着手할 豫定이다

預金部資金運用委員會經過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 預金部資金運用委員會는 十日午前十時부터大藏大臣官邸에서開催 左記와가치 資金融通에 關한議案五件과 그融通額合計四千五百六十萬圓과 朝鮮銀行에 對한貸付金의 條件變更에關한件及 融通條件, 賣却限度擴張에 關한件을 可決하엿다

一、昭和十四年度 各種組合普通事業資金(商工省關係)追加融通件
一、勞務者住宅建設資金融通件
一、滿洲國債買入件
一、政府保證債券의 資金追加運用件
一、昭和十四年度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關係資金追加融通件
本委員會第七十回會議에서 一千七十萬圓以內의 融通을決定하엿든데 其後同積立金은 百六十萬圓의 運用餘力이 생겻스므로 增額融通하기로함
一、朝鮮銀行에 對한 貸付金條件變更에 關한件
特別貸付金現在額 六千六百萬圓中 六百萬圓을 今月로당겨서償還케하고 殘額六千萬圓에 關하여如左히融通條件을 變更하기로하엿다
一、償還方法
가、昭和十五年以降 八個年以內에分割支拂하기로함
나、利率
昭和十四年九月以降當初의 二個年間은 年二分五厘로하고 三個年後의利率은 年五厘로引上하기로함
一、大藏省預金部所有有價證券賣却限度擴張件
前回委員會에서 決定한昭和十四年度 大藏省預金部所有有價證券賣却額의 限度二千萬圓에 對하여 五千萬圓을追加 八千萬圓으로 하엿다

在米高第一次發表 八月一日現在

【東京電話同盟】八月一日現在在米高第一次發表(農林省)는 內外十四地方分合計五百十一萬一千七百三十五石으로 前年同期에 比較하여 五十四萬四千七百五十六石(九、六%)의 減少이다

第七次東京會談 英、今日中續行希望

【東京電話】日英會談決裂의 危機에 直面한 在京英大使館側에서는 會議續行을 熱心히希望하여 如左히 第七次會談이 開催되기를 期待하고잇는旨를 漏洩하엿다 卽

一、現在大使館側이 接受한 訓令은 會談을 續行하기 爲한 措置로서 아직 本國側의最終的見解에는 接하지못하엿다
一、그러나 現在入手한措置를基礎로하여도 週末까지에는 第七次會談은 열수잇슬줄로생각하고잇다
一、本國側의 最終的見解도 곳到着할것으로 豫想되나 特히十一日午前中에 接受할可能性이 充分히잇다
一、이러한 境遇에는 英國側에 對하여 卽日第七次會談開催를 申請할 準備를 整頓하고잇다

會談續行與否는 全然英國態度如何에

【東京電話同盟】現地軍代表撤退로 日英會談은 深刻한 決裂의 危機에 臨하고잇는데 그結果 會談을 今後續行할지 어쩔지는 今週中에 英國이 誠意잇는 態度를 表明하여 最終的回訓을 가저오느냐 안가저오느냐에 걸려잇다 그러나 帝國代表及 外務當局에서는 今日까지의 經緯에 徵하여 英國이 依然誠意를 披瀝해오리라고는 생각지안코 最惡의 事態에 備하여 萬全의對策을 考究하고잇는 模樣이다 卽 現地軍代表歸還後 英國側으로부터 如何한 申請이잇드라도 東京에서 日英會談을 續行함은 事實上不可能하므로 남은길은 再次會談을 天津으로옴기든가 或은 또會談을 一旦中止하여 斷乎自力解決의 方途를 擇하든가의 二途中一途를 擇할수박게업는 터로 只今와서 英國側이如何히 誠意를披瀝해와도 帝國으로서는 新東亞建設의 大目的에서 判斷해서 獨自의態度를 決定할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大陸에잇서서의 英國의 全權益에對하여事件이 頻發하는 狀態를誘致하드라도 이는全혀英國側의 不誠意無理解에 基하는것이라는 牢固한 決意를 굿게하고잇는 模樣이다

英總領事抗議를 田代總領事一蹴

【天津十日發同盟】天津特三區英租界記者行에 對한 華人民衆의 暴動事件에 關하여 지난 八日書面으로써 제미순英國總領事로부터 我方에 抗議해온데 對하여 我總領事館當局은 大體로 實情調査를 完了하엿스므로 十日書面으로써 田代總領事로부터 大要如左한 回答을 發하여 이를一蹴하엿다 特二區에서의 今番暴動事件은 結局華人民衆의 反英的感情의 暴發로서 英國이 北支에 對한 認識을 根本的으로 고친다면 容易하게 解決될것이다 따라서 我方에 對한 抗議는 筋違의것이라 할것이다

現地第三國側 英國態度를痛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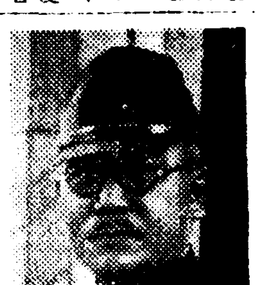
【天津十日發同盟】日英會談에서 現地問題를 分離하여 會談을 中絶시키려는 英國側의 態度가 明白히되자 天津에잇는 第三國側은 英國側의 態度를 非難하는 同時에

一、英國側의 主張하는 現銀問題에 對한 法理的解釋은 畢竟 法幣維持를 圖謀하려는데 不過한것으로서 이에對하여 日本側은 當然히 拒否할것이다
一、法幣問題에 關하여는 現在北支에서는 거의 聯銀券이 流通하고잇서 法幣는 必然的으로 消滅될 運命에 잇다

日英對立은宿命的 伊外相機關紙論評

【羅馬九日發同盟】中部伊太利의 有力紙는 「宿命的對立」이라는題下에 一九二○年以來 日英兩國關係를 論하여 日英對立은 偶然한 事實이 아니라 歷史的宿命的인것이라고 論評하엿다

武藤現地軍代表 兩三日中天津에歸任決定


(寫眞은 武藤少將)

【東京電話同盟】日英會談現地軍代表武藤少將은 現地에서 現在作戰行動進行中이라 英國側의 事情을위하여 再開를 기다려 이以上 滯京할수 업슴으로 兩三日中에 天津으로 歸任하기로決定하고 十日外務省側과協議 此를 加藤公使로부터 크레기駐日大使에 通告하고 同日陸軍省首腦部에 對하여도 日英會談의 今日까지의 經過를報告하고 東京을떠나 現地로 歸任할터를 報告 諒解를 求하엿다

日本海聯盟 廿五日新潟서總會

【東京電話同盟】日本海를中心으로한 內鮮滿產業貿易의 發展과 滿洲移民의 圓滑한遂行에 資하려고 昨年一月設立된 日本海經濟聯盟에서는 오는廿五日 新潟市에서 第一回總會를開催하고 日本海를 中心으로한 當面諸重要問題를 協議하기로되엇다

辭令

(十日附)
任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七等) 總督府稅務署屬 佐藤弘
命平壤稅務監督局在勤
任朝鮮道立醫院事務官(七等) 朝鮮道立醫院書記 瀨川利晃
命慶尙北道在勤
(大邱局長)總督府遞信副事務官 崎山信
命淸津郵便局長
(釜山局長)同 岡文一
命釜山貯金管理所長兼務
總督府稅關鑑査官 古田高暐
命京城稅關支署長
(各通)
(仁川)總督府稅關鑑査官 黑木豊秋
(京城)總督府稅關鑑稅官 本鄕臣雄
依願免本官

西南各地抗戰派間 軋轢熾烈化는難免

汪精衛和平演說의影響

【香港十日發同盟】昨夜廣東에서의 汪精衛의 和平演說은 蔣政權의 焦土抗戰에 疑問을품고잇는 廣東實力派와 잇달은 敗戰에 依하여 漸次厭戰的傾向을 가진 支那軍前線將士에 深刻한 影響을 주엇는데 特히汪氏는 그演說에서 日本軍과 地方實力者와의 局部的停戰이 可能하다는것을 示唆한것은 더욱 蔣政權의 遠心的傾向을 增大시키는것으로서 注目된다 이에對하여 國民政府側에서는 最近의 嚴然한 國防委員會議決과 戰時黨制委員會의 決定線에따라 擧國抗戰理想에專力하는同時에 新政權運動의 毀妨에 온갖努力을 다할것으로 보이는데 西南民衆과 海外華僑의 反戰主和機運은 國民政府의 毀妨에不拘코 汪演說을 契機로一層拍車를加할形勢로서 西南各地의 抗戰派의 軋轢은 더욱더욱熾烈化할것으로 豫想된다

南支派遣軍協力 汪氏和平運動에

【廣東十日發同盟】南支派遣軍當局談＝抗日蔣政權과 絶緣하고 日本과 提携하여 東亞時局收拾에 進出하려고 重大聲明을 發表한 汪精衛氏는 過般南支派遣軍最高指揮官及 軍首腦部와 數次에 亘하여 會見하고 今後時局收拾에 關한 根本方策을 披瀝하여 南支에서의 汪氏和平運動에 關하여도 隔意업는懇談을 거듭하엿는바 그意見은完全히 一致되엇스므로 軍으로서는 昨九日汪精衛氏가 다시 放送으로 聲明한바에 對하여 全幅的贊意를表하고 可能한 限協力과 援助를 애끼지안흘것이다

北支要人積極的態度

【北京十日發同盟】汪精衛의 廣東에서의 和平放送은 北支民衆間에 多大한 感銘을 주엇다 特히汪氏가 身命을 돌보지안코 南支의 中心에 들어와서 和平工作에 奔走, 日本側 現地最高當局과도 諒解가 成立되어 南支의 新生中國의 主權回復과 公正한 和平實現이 可能하다는것을 自信을 가지고 天下에 公約한것은 智識階級의 胸衷을 기피찌르는바잇서 汪精衛에協力 新東亞建設에 邁進하려는 機運이 자못 濃厚하게되엇다 이미 民間有力團體間에는 汪氏의 呼訴에 呼應하여 近近積極的態度를 闡明 代表를 派遣하여 汪派要人과 會見하려는 계획이 잇다

抗日取締峻烈로

重慶側反타이宣傳開始

【香港十日發同盟】最近타이國의 華僑의 抗日運動取締는 峻烈을 極하여 抗日分子國民黨員의 逮捕 華僑學校의 閉鎖 華僑各銀行의 閉鎖 銀行經理의 拘引等이 연거퍼 實施되고 잇스므로 이에 唐突한 重慶政府에서는 各種言論機關을 通하여 反타이宣傳을 開始하엿는데 十日의 華僑日報는 大要如左한 社說을 揭載하여 反感을 煽動하엿다

타이國이 親日政策으로 轉하여 排支風潮가 顯著히 濃厚하여 三年來在住華僑는 恒常壓迫을 바더오는바 特히最近의 反支態度는 露骨的이다。타이國은 目下抗戰進行中의 我國을 돌보지안코 我民族과 血統關係에 잇슴에 不拘코 排支運動을 行함은 國際友誼를 無視하는것이다 타이國과 我國間에는 何等의 條約이업스므로 我國은 取할수잇는 擧措를 取할것이다 타이國의 繁昌에는 華僑의 힘이 크나 타이國이 華僑를 排斥하면 華僑는 安南緬甸植民地等에 移轉할것이다

李宗仁 敗戰隱蔽에熱中

【漢口九日發同盟】八月上旬我愛甲以下各部隊가 湖北省隨縣西北地區 掃蕩中에 어든 情報에依하면 重慶政府가 各種工作員을 派遣하여 抗戰勝利를 마음껏宣傳에 努力하고잇는데 不拘하고 最近敵軍의 五戰區間에 襄東會戰以來 敵陣營이 再起할수업슬程度로 徹底的打擊을 밧고잇는 敗戰狀態가 일여저 民衆의 厭戰의 念이 增大되어잇다 이에 놀랜 總司令李宗仁은 支那軍 敗戰의 戰況을 안民衆을 懷柔하려고 不問曲直하고 嚴重處罰하여 敗戰隱蔽에 努力하고잇는바 各種商人의 往來로 依然敗戰의 流布가 뒤를 끈치지안흠으로 지난六月一日을 期하여 第五戰區全地區에 亘하여 一般住民의 他村鎭과의 交易을 禁止하는 非常手段에 나와섯다 民衆은 重慶政府의 苛斂誅求와 戰火에 加하여 이제는 또交通自由까지 剝奪되어 黨軍에對한 怨嗟聲은 第五戰區에 充滿하고잇다

市況(十日)

◆橫濱生系後引◆
當限 三〇〇〇 先限 三一〇〇

廣告

南總督旱災地視察

今朝慶南北地方向發

南總督은 近藤秘書官과 田中課長을 帶同하고 左의日程으로 慶南北 旱害地를視察키로되엇다

八月十一日 午前七時五十五分 京城發 慶州着
八月十二日 慶州發 大邱着
八月十二日 大邱發 海雲臺着
八月十三日夜 海雲臺發 釜山着 京城着

山脇、澤田兩次官 東京會談等協議

【東京電話同盟】山脇陸軍次官澤田外務次官은 十日午後一時五十分 定例次官會議散會後 首相官邸에남어서 東京會談其他에 對하여 協議하엿다

兵站基地朝鮮의 現地報告 ⑨

江原篇

三陟、寧越無盡石炭 三億七千萬噸埋藏

本社特派員 成仁基

三、石炭五個年計畫과 三陟無煙炭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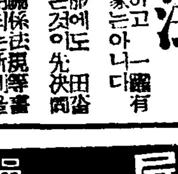
三陟, 寧越無煙炭田은 平安南道南部, 北部兩無煙炭田에 버금되는 朝鮮無煙炭田의 大宗으로 그埋藏量이 約三億七千四百萬噸으로 推測되나 三陟炭田만도 埋藏量이 公稱三億噸이라한다 이炭田은 昭和十一年四月總督府의 石炭五個年計畫에 步調를마추어 이炭田開發을 目的으로 設立된 三陟開發株式會社(資本金一千五百萬圓)의손에 依하여 十一年五月부터 採掘되기始作한것이다 그間各種施設을 着着進行中으로 開發五個年計畫의 最終年度인 昭和十六年에는 年百萬噸以上出炭할計畫으로 採掘炭은 大部分內地의家庭燃料又는 海軍燃料用炭으로 各重工業會社의 燃料로移出키로되엇다

現在까지 判明된朝鮮石炭資源의 總埋藏量은 有煙炭埋藏量이 十八億七千七百萬噸 無煙炭埋藏量이 十三億四千七百萬噸 合計三十二億噸으로 計算되는데 今後需給關係를 보면 昭和十一年의石炭需要가 三百二十萬噸인데 이에對한出炭量은 二百三十萬噸에 不過하여 結局九十萬噸의不足으로 이不足을 內地炭이나 滿洲炭으로 移入치안흐면 아니되는 現狀이다 다시 石炭輸移出入關係를 살펴보면 移入이 八十八萬噸 輸入이 六十五萬噸으로 輸出이 四萬噸으로 內容인 百萬噸假量을 內地에 移出하는것이다 質이조흔無煙炭을移出하고 그代身 下等炭을 移入하여다가 一般이 使用하고잇는것이다 何如튼 어와가치 朝鮮의 石炭需給은 到底히自給自足의 境域까지 어릴 可望이적어서 將來需給에 만흔 支障이 잇슬것이므로 總督府에서도 昭和十一年에 石炭增產五個年計畫을 세우고 着着增產計畫을 進行中인데 이 計畫은 昭和十一年의 出炭額有煙炭百二十三萬噸無煙炭百五萬噸을 五個年後인 昭和十六年에는 有煙炭二百五十萬噸無煙炭四百廿萬噸으로 卽有煙炭을 二倍無煙炭을 四倍增產하려하는것으로서 其中에서 內地의 無煙炭全需要量二百萬噸假量을 內地에 供給하려는것이다 이五個年計畫이 끗나는 昭和十六年의 朝鮮의石炭需給關係는 計畫樹立後의 各種工業用石炭急增을 考慮하여 到底히 自給自足은 可望이 업는것이나 內地의 無煙炭需要額은 全部朝鮮서 供給하자는것이다。우에서말한 石炭五個年計畫과 石炭需給關係에對한 說明은 本論과는 相關이업는 느낌이잇스나 三陟炭田開發의 始初가 石炭五個年計畫에잇고 또 三陟炭大部分의 內地移出도 이에原因되고 또이것이 朝鮮經濟의 一現象임을 諒解하는데 한모음이될가하여 興味업는 數字를 羅列해본것이다。

四、三陟炭鑛施設

三陟炭田은 三陟郡所達面과 上長面에 널리걸치어잇다 三陟邑으로부터도 百餘里乃至百五十餘里에 達하는 곳에잇서 採掘을開始하기前에는 交通이 몹시險한 곳으로서 五十川을 끼고 겨우徒步로 來往하던 山中이던 至今은 三陟邑으로부터 三陟炭鑛事務所가잇는 所達面 道溪里까지 定期自動車가 五十川을 끼고 달리며 興田坑口直下 道溪里로부터 江陵郡 墨湖港까지 四十一키로間에 無煙炭運搬을 主目的으로한 三陟開發會社 專屬의 私鐵이 敷設되어 아직 開通式은 안하엿스나 이미 竣工되어 하루에도 몃차례씩 炭鑛所用材料와 無煙炭을 運搬하는 貨物列車가 往來하여 前日에는 山峽이던 三陟邑이나 墨湖까지 오는데도 어려웟던것이 이제는 汽車로不過一時間餘 自動車로 四五時間으로 連絡하게 되엇다 現在에는 三陟炭鑛은 所達面 興田坑口 上長面 鐵岩 長省 鈴川 四坑口에서 採掘作業을 하고잇는데 道溪里에서 長省坑口까지는 그距離가 퍽 멀어서 連絡이 不便하므로 三陟開發에서는 三陟鑛道溪里로부터 前記長省坑口앞까지 빠스를 運轉하여 自己들의 連絡便宜를 圖謀하며 地方發展에 꾀하고잇다 道溪里가 三鑛探終點으로부터 各坑口로 各種材料는 其中에도 坑木全部는 京春鐵道所有의 部隊가 道溪里에와서 駐屯하여 말나즈로 끌어서 실어날르다 以上에말한것은 一般物材運搬을 主로 이야기한것이다 炭坑에서 採掘한 石炭運搬에는 興田坑例를들면 坑內에서 끌어올려 坑外까지 내어다가 (케불카)잇는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밋흐로 내려보내어 石炭運搬에는 興田坑例를 目的으로特設한 索道로 三陟鑛道停車場으로 보내어 汽車로 墨湖港까지 가서 大量需要地인 內地重工業地帶인 大阪, 名古屋, 富山, 新潟等과 北朝鮮方面으로 直送하게되엇다 이와가치 三陟炭田은 運輸交通網을 整備하여 開發第一期計畫을 마치고 第二期, 第三期計畫을 向하여 一路邁進하고잇다 (續)

名稱 鑛山發見法
솔솔한돈버리 素人도반다시아는
「鑛山發見의實際智識」(定價一圓八十錢)東京蒲田區蒲田町
金鑛外重要鑛物標本一組廿種을無代添付


桃屋의 桃罐詰 一等品第一
날것보다 맛잇는 白桃、黃桃
各데파-트와食料品店에잇슴
東京 桃屋發賣

建築報國
月賦建築 設計監督 工事請負
建築資金貸付
無料建築相談部
電(本)1681 1381
黃金町二ノ五五
東京建物株式會社

アミノサン도매
釜山府瀛州町 丸星商會
(時勢表進呈)

ヤパンモア
特殊 除去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番號變更謹告
今般弊社에서從來使用하던 電話二五四番을廢하고電話五六八番으로 變하엿사옵기玆에謹告하나이다
昭和十四年八月一日
大邱府院垈洞一、一八八
三南고무工業社
電話特五六八番

パイロット高級インキ
뛰여나게 品質優良
携帶便利한 固形잉크
二十錢
三十錢

白頭山特產品 ツルチュク

性病 尿の病
腎臟 膀胱 尿道 淋疾 消渴 頻小便
自療堂泌尿部

小兒の下痢止 消化不良に
ベービー散
ベービー散은
一、애기들이갑자기泄瀉를하는경우 또는눌금은便을보는경우
二、냄새나고거품이끼며粘液이석긴便을보는경우
三、食慾이업고먹은것을吐하던지消化가안된便을보는경우
藥價 貳拾錢(三包入) 參拾錢(五包入) 五拾錢(九包入) 壹圓(二十包入)
製造發賣元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香氣넘치는머리 자랑할머리
그것은金鶴이맨든머리!
金鶴香油

商標 千
고추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電話園一一八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進呈하겟슴니다

非常時國防色
學生服一般
大量製造卸
商店名限相場表進呈
特히冬服十五萬着限豫約募集
朝鮮沙里院
東一工業社
東一票

美味滋養
カゴメケチャップ
가고메게첩
品質優秀한 調味料
어느名婦人이나 主婦께서도 大贊成입니다
어떤料理라도 이것만 잇스면 念慮업시 치면곳 맛잇게잡수실수잇슴니다
全國食料品店、百貨店에有
カゴメ 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시골사람汽車求景도 이만하면"넌센쓰"

아직도어둠컴컴한沿線文物의現狀

鐵馬에앞서서 未開通鉄道沿線風土記

京慶線 ② 本社特派員 柳興台 文寫

내후년봄 경경선이 완성되면 지금 기차가 넘고있는 죽령재의 공드린 자동차길도 갈없는 것이 되어버려 경상도 부쪽고헤서 노픈고개를 넘으며 경상도땅을 내려다 보다는 원시적인 풍취도 없서지려니 생각하매 여기까지 오길이 다시한번 돌어다 보인다

◇…◇

대구(大邱)에서 영천(永川)으로 가는 차를 바꾸어타니 기관차 뒤에 『레일』을 잔뜩실은 화물차가 연결되어있서 곳 경경선공사에 씨울것이로구나하는 심작을 가지게한다 영천에서 우보(友保)까지의 백리길은 작년 십이월일일에 개통된것으로 승객은 별로만치안코 그나마 공사장으로 가는 인부가 대부분이어서 얼른 눈에 띄운다 어들은 가족과 가치가며 보따리를가지고 바가지를 꽤친품이 한발로 농사지을길이없서 고향을 떠날길이것갓다 수십년래 처음인 경주(慶州)의 안압지(雁鴨池)가 몃바닥어 드러나도록 가물어 마저막 소원이던 대용작조차 바랄길이없시되지 이들은 너도나도하며 경경선공사장으로모여드는것이다

◇…◇

철도공사는길따는것과 궤도를 까는일로나누어 길닥는것은 토목업자에게 도급으로맞기며 궤도일은 철도국에서직영으로하게 된다 도급마든사람들은 현재경경선연선에 걸처수천명노동자를 사용하며 길만은 거의다만들엇고 남은것은안동군의 금개(金城)『런넬』 죽령『런넬』 원주(原州)군의 치악(雉岳)『런넬』등 수많은 굴을뚜르는 일인데 의『런넬』이잇다 시국관계로경경선의 중요성은 날로더하여가서 철도국에서도재료가 들어오는대로 시각을옮기지안코 철로를펴나가는데 우보에서 의성(義城)까지 약사십리는 이미공사가끗낫스나 공사에쓰는 물자를 운반하는데 지장이생길가바 아직영업을 하지안코잇다

◇…◇

지난무월말 우보에서다시 빼더나가는 궤도부설이 의성까지 가개되자 기차를 타보기는커녕 구경도못하였든 근처주민들은 기차를구경하려고 물밀듯 몰려들엇다 도회지에 사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할것이나 이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일부 특수한 사람들을 빼고는 그땅에서 나서 그땅에서 가고마는 단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타 교통과 문화의발달이 이기치 긴밀한 관계를가지고잇나 생각하리만치 도회지에 사는사람이 이광경을보앗다면 그들이기차를 놀라운 눈으로 보는것의 몃갑절의 놀라움으로 이광경을 보앗슬것이다 이십리가량 떠러저잇는 소학교에서는 점심을 싸가지고떠나 원족가는 셈치고 단체로 구경을와서 법석거리며 미신이 풀즈에 서준 부인네들은 눈 정기가 조하진다하며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기관차에서 떠러지는 물방울을 바더 눈을씻는다 또한 하두 신기하여 진행하는열차를 만저보는사람 궤도안으로 뛰여드는 사람등 사람이너무만히모여 기차가 진행할수업섯다 이런 법석가운데서 어떤노인한분이 궤도에들어안즈며『양반이안지잇는데 누가 내아들시나가』하며 명령하듯 하여 뭇사람들을웃겻다 이기를 일이잇든지한달이 지낫서도 기자가 타고가는 공사열차부근에는 까마케버데들은 아이들이 여전히떼버룰고잇다 이곳은 경부선연선에비하여 십년이상 문화정도가 뒤지고잇다는것도 괴이치안흔말이다

◇…◇

의성을북으로 구십리 여기는 안동땅이다 경부선연결되는 경북선(慶北線)으로 이미서쪽과의 연락이 긴밀하여진때에 또다시경경선이 여기를 지나게되어 벌써부터 무서운기세를 올리고잇다 부제(府制)실시의 전제로 안동신사 숭경회교고등여학교와 지방법원 합의부설치문제등 지방발전책을 꾸미느라고 유지들의 맹렬한 활약이 눈에 보이는듯 거리는 매우 활기를 띄우고잇다 안동은어뿐만아니라 시가지근처로 낙동강(洛東江)이흐르고있서 수운의 편리까지 잇는데 부근에는 선어대(仙漁臺)가튼 명승이잇서 안동의 명일을 기대하고잇다

한발은 이곳역시 대단하여 기자가 안동때에 들어오기 이삼일전 군조에서 대용작에 쓸 교맥(蕎麥)종자를 사려고 농민들이 만히들어오자 시중의 장사치들은 덤어비싼값을붙을뿐만아니라 물건을가지고도 팔지를안하 드디어 안동서 경제경찰이 장사들을 경칙서 구내에 불러다가 경관입회하에 매매를 시켯다는 비극까지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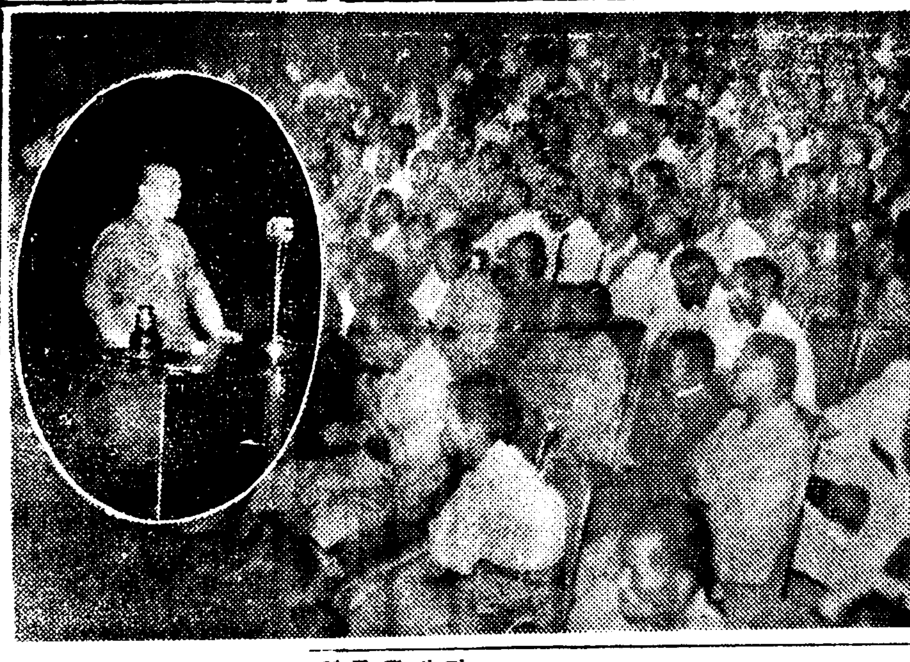
(사진은 연선의 명승지 안동의 선어대)

"營業時間短縮問題는 業者의自肅에달렷다"

巷間의孟浪한風聞"十一時制限說"에對하여 高警察部長全的으로否認

경성시내의 요리점 음식점이영업시간 제한문제에 대하여 취체당국으로부터는 아모러한 새명령을 내린일이 업슴에도불구하고 종래열두시까지이던것을 팔월일일부터 한시간더 줄여서 열한시까지로 하리고 취체당국에서 업자에게 명령하엿다는헛소문이 떠돌고잇서 이때문에업자와및 일반시민에게 마치취체당국의 명령과 취체에 통제를결함과가튼 인상을주고 잇슴에비추어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이기를일반의 오해를 일소하기위하여 십일고(高)경찰부장으로부터 담화가 잇섯다

최근취체당국으로부터 종래의 열두시를 열한시까지로 단축할것을 업자에게 명령하엿다는 소문이 돌고잇는 모양이나 당국으로서는 이가튼 명령을 내린일이업다 따라서 영업시간이 열두시까지임은 종전과 다름업다 한시간이라도 단축하는것이 조흔일임은 물론이나 그러타고해서 업자측의 수지관계를 전연무시하고우리마음대로 줄여다놓엇다 하는것은 영업의성질상 온당치안흔일이기때문이다 하지마는 금후라도 업자측에서 자발적으로 좀더시간을 단축하겟다고신청해온다면 문제는다르다 요컨데 업자의자숙이고 우리로서는 무리하게 간섭할생각은업다 그리고 가무음곡(歌舞音曲)은 종래에도 열한시까지가한정이지만 금후도 기어히 이대로 지켜주기를부탁한다



暴英、百年間의罪惡 淸算時期가到來

南總督、排英同志會幹部激勵

배영동지회 회장 윤치호(尹致昊)씨와 부회장 시과영삼랑(矢鍋永三郎)씨는 동회결성인사차 십일가친 열시반 총독부에 남총독을 방문하엿는데 이에대하여 남총독은 배영사상을 강조함은 시국이 중대한 지금민중을 지도하는데 의의가 크다 영국은 이때까지 백년간이나 세계식민지를 착취하엿고 지나도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고잇섯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영국을 의존해서 나가려하여 이번사변을 일으켯는데 영국이 백년동안이나 동양에서 지은 죄악은 이제청산할 시기에 다다른 것이다 이 뜻을 민중에게 철저히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귀한 사명을 가진것이다 라고 격려하엿다 그리고양씨는 대야(大野)정무총감 삼교(三橋)경무국장을방문하고 다시 중촌(中村)군사령관 미(?)헌병사령관을 역방하여 인사를하엿다

張皷峯事件記念講演

장고봉(張皷峯)사건일주년 기념의 십일밤여덟시부터 경성부민관에서는 조선군보도부 희다(喜多)소좌와 보도부개천(芥川)소좌의 통기끈강연회가잇서 만장의 청중에 기픈감동을바뎟섯다 강연이끗난후 관동군제공의 영화『장고봉사건』『노몬한사건』『러시아의혁인』등을 상연하엿다 (사진은강연회장)

咸北巾着網組合 出漁中止決議

重油缺乏으로束手無策

【淸津特派員發電】 중유결핍으로 출어치못하고잇는 함북건착선들은 그동안 조합을 중심으로하여 대책을 협의한결과 아모방책이 업서서 오는열하루날부터 열흘동안 출어중지를결의하엿다 각어선은 정어리떼를 보면서도 하는수업시 기름이오기를 기다리고잇다

日射病으로 通行人卒死

구일오후 세시경 부내돈암정(敦岩町)이백구십번지압 길가에서 오십세가량되어 보이는 여자의 죽은시체를 지나가던사람이보고 동대문서에 알려왓스므로즉시 계원을보내여 검시한결과죽은원인은 일사병(日射病)으로판명되엇스나 신원은알수업다

今日末伏

입추(立秋)가 지낫지도 벌써 사흘이나 되지만 폭염은 아직도 계속되고잇서 가을에 들어간듯한 느낌이 업스나 금십일일이말복(末伏)이니 이것만 지내면 금년더위도 마즈막이다 그리하여 아침저녁은 물론 낫에도 제법가을의 선들바람이 한여름 시달린사람들을 살찌게할모양이나 환절기에 전염병이 발호하기쉬우므로 몸조심이 필요하다

自動車燃料로 아세틸렌代用

鐵道局光州自動車區에서試驗

철도국광주(光州)자동차구에서는 목탄과 기타대용연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그성적을 비교연구하고잇는데 이번에 또『아세틸렌』자동차를 사용하여 실제영업에 사용하여보면 수지가마출 …

酷甚한旱魃로 朴淵瀑布에水渴

水聲일흔山峰에岩松쪼차枯死

【開城】 요즘 지독히가물은일기는 영원히 말으는날이 업다고 자랑하던 박연폭포까지 말리고 말앗다 백모장을걸친듯한 폭포수의 그모양이 이제는 겨우실낫가튼 물줄기로 잔명을이어가고잇다 벽랑에울려오던 우렁찬물소리는 간곳업고 산천은 온통 귀먹어리가되고말아 물소리라고는 귀를기우려야 드를수업다 그리고 명산승수(名山勝水)를자랑하던 박연의 계곡을차자봉라간대도 목욕할만한 물조차변변치안코 산봉오리를 치어다보면 바위짬에 솟아난 소나무들이 새발아케 죽은것이 허다해서 한천은 마침내 박연산성의뜻치조차 볼부치는듯 가엽게보인다 그래도 이곳이 개성에서는유일한 무하경(無夏境)이라고 차자드는 피서객들은 매일평균하여 수백명이나 되는데 … (사진은 박연폭포)

朝鮮體協主催 神宮體育大會

十八種目의스케듈 ①

조선체육협회주최의 제십오회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는 래구월구, 십양일간에 거행될 수상경기로부터 개막되어 …

殺人漢江에또 溺死體

好評의"忠魂"

中央基靑主催의 아마拳鬪大會 九月七日부터開幕

三種目에新記錄 日滿自轉車競技

朝鮮、關西陸上에 金君新記錄 百米에十秒五

東峯仁川서合宿

평건軍補助運動

어린이도잘먹는 鐵과肝油가 完成되엿음!

全國有名藥局에서販賣하오나、賣切時는 直接本舖로注文하시요

强壯劑의選擇法

第一먼저、그强壯劑에成分을알어야할것이며、둘재로는、일것包含된滋養素를胃腸에서完全히吸收할수잇는것이안이면안이됩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强壯劑라는것은、一時的의治療藥이안이고、長期日동안繼續하야、服用함에서곳효果를엇는것이니、中斷되게됨으로、服用하기가容易한것이여야만합니다。

鐵과肝油

누구나다아시다십히、鐵劑는血液中의赤血球헤모구로빈의主要成分이되고、肝油는、비타민A・D가多量으로包含되여、强壯劑로서王者를占領하고잇지만、在來의鐵劑는收斂性으로、胃腸을害하야、完全히吸收하지못할뿐안이라、食慾을減退시키고、便秘가되기쉬웁니다。그리고肝油는사람이第一싫여하는惡臭를가지고잇어、服用함에困難할뿐안이라、亦是胃腸에서、攝取가完全히지못하야、泄瀉가되고、食慾을害함으로、長期服藥으로繼續하야、服用하기가困難하였음니다。

滋養鐵肝油

그럼으로、이가장조흔强壯劑鐵과肝油에右와가튼欠点이있어、榮養學界큰宿題가되여多年間苦心研究한結果、이모든欠点을排除하고、完全無缺한榮養劑를發見되였으니、그것이、專賣特許滋養鐵肝油입니다。滋養鐵肝油는、코로이드鐵과、코로이드肝油의結合体로、胃腸의吸收가容易하며、食慾減退、便秘의念慮가업고、鐵과肝油는、茶와牛乳가튼것으로服用하여도조곰도副作用이업이여、服用한量의全部가完全히吸收되여곳血과、肉이되여、每日体重이顯著하게늘어감니다。

十大特長

吸收完全 / 貧血恢復 / 細胞賦活作用 / 食慾增進 / 便秘增進 / 茶·珈琲와飮用可能 / 絶對로게트름이나지안함 / 抵抗力增强 / 疲勞恢復 / 美味服用容易

德用瓶 四円八十錢 (五〇〇瓦)
一個月分 一円七十錢 (一五〇瓦)

無代進呈

當分間葉書로申込하시면試用藥과가치、朝鮮文으로된說明書를無料로보내여드림니다。그러나試用藥은滋養鐵肝油現品을보내는데、甚히高貴한藥임으로、本意는안이오나先着一萬名에限하야드리오니急速히請求하시는것이조흘실것임니다。

東京市深川區佐賀町 工藤商店藥品部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新井藥房 / 釜山辨天町 藤田藥舖 / 馬山府都町 石見屋

滋養 鐵肝油

桃花劇場

八月九日より三日間 期待の問題の二大巨篇併映の壯觀 每日畫夜二回 一時七時開映 大衆料金 …

「愛染かつら大會」 原作 川口松太郎 主演 田中絹代・上原謙 …

「豪傑ブラウン」 監督 エドワード・セッチウイツク 主演 大口名男・ジョー・E・ブラウン

喧嘩鳶

九日より特別封切 大河内傳次郎主演 …

新婚お化け屋敷 パラマウント映畫特作 ブ ウ ル ウ ジェーン・リガン・コーリン・タプレイ主演 各社ニュース

劇團 靑春座 公演

八月四日晝夜 三幕四場 버들피는故鄕 李圭熙作

人生의 가장깨끗하고 崇高하고 …

東洋劇場

電話(本)2154(現場) 3640(事務所)

南宮春作 一幕 이런수도잇나요

松竹映畫 キネマ

九日より一週間 ◇新興東京特作 あわてた友情 沼波功雄演出 眞山くみ子・宇佐美淳主演 ◇新興京都大作 足輕女夫鑑 ◇松竹大船超大作 胸に咲く花 佐分利信・三浦光子・桑野通子主演 各社ニュース

第一劇場

今週映畫と演藝 八月九日より 佛ペテナタン映畫 レミゼラブル ジャンバルヂャン アリボル主演 六日間ビクター專屬樂團 牛島スキングボイス アトラクション 文藝映畫 圖生錄 主演 …

中部版

映畵、講演會開催 防共日行事決定

【忠北支社發】방공협회충북지부에서는 오는 팔월십오일방공협회 일주년기념일을 당하여 관하각군에잇는 지부를 동원하여 방공일주년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일반의이식을 재강조하기로 되엇는데 대체로다음과가튼 행사를 실시하기로되엇다한다 1、講演、映畵、演劇等開催 2、記念式—國旗揭揚、宮城遙拜、國歌合唱、皇軍武運長久祈願及戰歿將兵에對한默禱 3、勤勞奉仕作業 4、宣傳삐라、포스타의貼付 5、街頭行進 6、座談會開催

土木課員을好餌로 土地仲介를兼業 眞字仲介業者는悲鳴

【仁川】인천부청 토목과고원들을 이 허진가지고도 압날의 발전 될지대를 알게되는것을 미끼로 토지 『뿌로카』로 전직을 하여 허가까시마른 토지중개업자들은 비명을 부르짓고잇다 그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인천부청 토목 과고원들중에 몃사람은 인천부 가 제아차 구역확장이 될곳에 아므로 발전성이만흔곳을 미리 알기때문에 그것을기회로 넉이고 땅을사서 주래을세운다든가 공장이 진출한다던가를 내용으로 조사하여 토지매매에대한암약을하여 할이면 자동차로 현지조사를 하는등 토지중개업자로서 소개행하여 매매의성립이 다된것도 중간에서 농간을부려서 중개업자는 일을다꾸며도수수료한푼도 못밧게간게를 부리고잇스므로 인천부내의 토지중개업자측에서는이대로두어서는지기네의생활이 곤란하니 현직을 가진 토목과고원들이 남의생계를 람내는것은 허가를가지중개업자에대하여서는 막대한영향을 밋치게하니 이를방지코저부당국자에게그대책을강구하여달라한다

家畜市場汚物로 部落民에怨聲高 仁川府衛生課의怠慢

【仁川】요사이인천부내에는 오물(汚物)이 산떼이가치 밀려서 길거리마다 파리떼가 엉겨들어 행인으로하여금 불쾌를 느끼게 하고잇는이때에 또오물소제를하지안허 부민들은 부청에대한비난이 자자하다 부내송판정(松坂町)일정목 일대는 부영가축시장(家畜市場)이 잇서서 도야지 소등팔려고 모여들기때문에 더러운것이 산떼이가트나 다가치 관리를하는 부위생과에서는오물소제를하지안코 그부근일대의부락에는가축시장에 엉겨든파리와 악취로한시간을 못견댈 지경이니 가축시장에잇는 거름만이라도 치워달라고 부락민들은 매일부청위생과에 전화를걸고 재촉하여도 드른체만체하고 한달씩이나모인거름과 냄새로 여름철에 대중위생보건상 극히 자미롭지 못함에도 그대로두어서 부락민의비난은 날로노파가며 부당국산에대한 원성이적지안타고한다

東海線末開通地 運輸上大混雜

【江陵】동해안철도의 미개통지대인 강원도양양(襄陽)이남 강릉(江陵) 삼척(三陟)에 이르는 지방일대에는 그의양양역에 이르기까지된 교통기관으로 유일의 자동차교통이잇는바 이자동차『뻐스』의 장거리교통기관으로서 불완전한데다가 최근또다시『까솔린』의 절약통제로 말미암은 회수제한 운전차량대수 제한등 영향은 더욱더 불편을 주고잇다 즉이지방일대에 자동차로 여행하여본사람은 누구나 다 목도케되는것으로 발차지에는말할것도 업고 연선각정지점에서 자동차를기다리는 사람들은 인원수의 이삼배는 언제든지초과케 되는현편으로 동해안철도가 하루바삐 개통되기를 바란다고한다

利原谷口消組設置

【利原】함남 이원군 동면곡구(利原郡東面谷口)에는 지난유월에 곡구소방조(谷口消防組)발기를 관동수재소 수석평정、유지 김대환(金大煥)씨외수명의 발기로 하엿는데 그간 천여원의기부와조합시설과 역원을 선정하엿는데 그역원과 의연한자는다음과갓다

役員 組頭 金大煥 副組頭 李栗昱 小頭 崔泰俊 金大謙 金南熙 組員 全部二十名 顧問 平井首席 崔任淳 金南淑 義捐者 金炳現 金大煥 李訟 崔任淳 川南工務其他都合

利原米價協定

【利原】함남이원읍에서는 지난 칠일에 군 면 경찰서 상인지주등이 회합하여 미가(米價)협정을하엿는데 삼두로 일두에사원씩하기로 결정하여 팔일부터 시행하기로되엿다

府廳職員의愛國班 活潑한運動準備 無爲를自愧코長時討議

칠십오만부민의 모범적애국반으로 경성부청내각과 계를단위로 결성된 경성부청애국반은 조직된지는 이미오래되나 아무런 구체적운동을 한일이 업는것은 일반부민의 애국반운동에 대하여서도 나뿐영향을주는것으로서 방임하여 둘수업는 중대문제라고하여 십일아침 총무、재무、공영삼부장은 부윤실에 모혀고표부윤을 중심으로 애국반운동의 구체책에 관하여 장시간협의를한 결과 불원각애국반장을모혀 최후결정을한다음 활발한운동을전개하기로되엿다

山下町道路開鑿 竣工式을擧行

【群山】군산부산하정(群山府山下町)도로 개착준공식(開鑿竣工式)은 예정과가치 지난구일오후 다섯시부터 동도로상에서 공작자를비롯하여 일반관계자 백이십여명 열석하에 성대히 거행을하엿다는바 동도로는 준공식과아울러 야간통행에대한 당면문제도서의 가로등(街路燈)은예

月尾島와松島遊園地 海水浴場을檢査 傳染病防止第二對策

사천개로 당국에서는 왓도 외 다엇다 투광기(投光器)를장비하기로하엿

【仁川】인천서 위생계에서는금년여름에들어서는 어쩐일인지전염병환자의 발생수효가 작년동기보다그통계가 약배나 가깝게 만히느러가므로 이에그방역에대해서는만전의노력을 하엿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수효로본다면 방역진을 무색케할만치 이질(赤痢)이 창궐하엿스므로 더할여지가업서 방역에대한힘을 썻스나 매일이삼명씩 발생이되니 이제는 그전의방식을고처서 각해수욕장을 엄밀히검색하고 소독이 불충분하거나 조탕(潮湯)물이더러워서 위생상 끼침을 주지나 안는가하여 송도유원지와 월미도 두곳의 해수욕장까지 격ㄱ하여 불충분한점이 잇슬때는철저히 그취체를하려고 목하강유원회사에 계원들을 파견하여내용을 조사하는 중이라는바 장차 그결과가 어떠튼지 일반의 주목을 이끄는중이다

開城驛移轉問題 陳情運動을要望 複線工事를契機로

【開城】반드시시가지중심지대에 잇서야할 개성역이 남대문시중에서 오리나 등떠러저 잇서서 일반부민은 교통상 막대한 불편을 느껴왓섯다 따라서 현재 태평정(太平町)에잇는 개성역을 남부 경덕궁(敬德宮)부근으로이전하기를 일반은 다년간 요망해왓섯슴도 사실이다 그런데이번 경의선복선 개량공사를 계기로해서 개성부세신진위원회(開城府勢伸展委員會)에서나 개성상공회의소에서는 반드시 철도당국과 기타요로당국에 개성역 이전을 지정요구해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그저무심히잇다고 식자간에 비란이자못돕다

酷暑繼續으로 馬鈴薯、果實도旱害

【利原】함남이원군에도 한해가 심하여 곡식에영향이 크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흑서가 계속되어 팔배여정보의 마령서(馬鈴薯)가 거이테엿다하며 파수에맷친과실도 데여서 떠러진다는데 근년에드믄 가물이라한다

火災의原因은 모두"不注意" 三浦淸州署長談

【忠北支社發】청주에서는 금년에들어서 다행히화재가 발생하지안헛섯는데 지난오일부터 칠일까지 삼일동안 직가하게도오회에궁하여 화재가발생하엿는데 에기에대하여 삼포(三浦)청주서장은 졸이기자단에게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진기하게도 삼일동안오회에궁하여 화재가발생하엿는데조사한 결과 담배불에서 발화한것이 한건 어린아이의 불작난이한건 남어지세건은 불이잇는재를 버린것이 원인이되어잇는데 이것은 모두 부주의로인하여 참변을보게하엿다 장기한발로 모든것은 건조할때로 건조하여잇는 판게로 불이붓기쉬운바 일반가정에서는 특히 불조심을하여 이와가튼 재해를 방지하기에 노력하기를바란다운운

伊太利巡洋艦 來月仁川入港

【仁川】맹방(盟邦)이태리의 순양함인『바르도로메오·고레오니』호는 이달하순경에 대련(大連)항을거처모방면을 향할터이던바 병참기지 조선의의식을 알고저 바다의 친선절사로써 이달하순이나구월상순에 인천항에 입항하여 닷새동안이나 정박하리라고 지난구일에인천부에 통지가 왓다

張鼓峯事件記念日 知事가感謝電報

【春川】십일장고봉사건일주년기념일에 강원도에서는 지사명의로 나남(羅南)회령(會寧) 함흥(咸興)의 육군병원에 각사전보를지고 도시구사단과 식구사단 사령부에 각각 감사전보를 타전하여왓다한다

春川에도誘引魔 被檢되어取調

【春川】춘천읍에도 유인마가잇서 남의처를유인하여 소개를붓처주고 금품과술등을 바더먹은 일이발견되어 방금엄중취조중에 잇다 소양통(昭陽通)이정목 남모(南某)의처 김씨(金氏)(三)는 금년사월이래 이웃사는 정(鄭)이라는남의처를 비롯하여 십여명을김팔홍(金八洪)이라는 공사장 십장외의 노동자 십여명에게소개하여 준것이라고한다

地方人事

▲金浴麗氏(前金浦郡地方産業技手) 今般滿洲國 奉天省官吏로 轉職人事次 本社金浦支局來訪

月尾島에橫行턴 소매치기를逮捕

【仁川】요즈음날씨가 몹시무더워서 월미도와송도유원지에 모이는 피서객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부적느러서 경찰당국의취체망을 교묘히버서나서 사람들이 만히단니는곳만 따라단니며 시게현금 부녀자들의 귀금속등의 도란사건이 날로느러 인천서에서는 어에그범인수사에 힘을쓰고잇던중 지난칠일 오후령시반경에 강화군강화면갑곶리(江華郡江華面甲串里)에 원적을둔김구산(金九山)(三)이뷰내해안정 경전빼ㅣ쓰 출장소에서빼ㅣ쓰를타고 송도 유원지에가는도중에 어떤자에게인지 현금십원을 지갑을 분실당하엿다는보고를밧고 형사대들이 강유원회사를 둘너차고 소매치기들을 근절시키려고 활동중이엿다 지난십일오전여덜시경 강전(岡田)형사부장이 뷰내해안정(海岸町)부근을 지날지음에해동이 수상한지기 품요중에 배회하고잇는것을 수상히여기고붓드러다가 취조한결과이지는원적을 대전부대흥정(大田府大興町)구번지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절도 전과이범인 김만수(金萬洙)(三〇)로 판명되엇다 이자는 금년봄부터 월미도와 송도유원지를무대로 사람들이 만이모이는곳에 나타나서 소매치기만 전문으로하여 주색에 소비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피해액도 상당히 만흔모양이며 여죄가잇지안나하여 계속취조중이라한다

手形交換에나타난 金融界의健全性 仁川에서七月中集計

【仁川】사변하에잇서서 항도인천의 금융계는어떠한가 일로인천수형교환소(手形交換所)에서취급한 지난칠월중의교환고는 총액의 유백구십팔만칠천사백팔십오전이나된다 이를 전년동기에 비하면 팔십만육천삼십륙원오십일전의 증가를보이엇스며 위체(爲替)취급고는 일천구백구십만 일천삼백이십오원으로서 전년동기에 비하면 백칠십오만오천칠백오십이원의 증가인데 칠월말십일일현재의 조선은행상 업은행 식산은행등 세곳의 저금총액은 일천일백구십이만이천백사십원으로써 전년동기에비하면이백팔십구만 유천오백팔십구원의 격증인데 대출총액은 일천사백칠십구만구천칠백팔십칠원으로써 이는전년동기에비하면 이십만팔천사백칠십칠원의 감소이나이것을 융개의 상황은전전한 현상이다

그리운물로!++++++++++++++++(開城에서)

皮膚病に

爽快無類의効果!

근지럽고몹시 아프고안절부 절하는皮膚病도 힌타ㅣ로氣分 조케速히輕快 합니다!

特長

힌타ㅣ는크림狀이므로永續的가치藥効가持續하며 나쁜데엄스며、患部에直接作用하여 的으로作用하여快速한効力이特長입니다

主効·

버짐、무좀、濕疹、음낭습진、옴 마른버짐、溫疹、땀띠、여드름、 두드러기、옻오른데、가려운데、왜 마마、眠瘡、지무른데、개기름흐 르는데

價 藥 二十錢 五十錢 一圓 三十錢

……各藥店에有함……

本舖 東京·大阪 守田治兵衛

一步進步한皮膚病藥

ヒンター (히 타)

惡疫を防げ

寶丹은單只口中劑와 달러서獨自의消化殺菌救急의三大効果를 가지고炎暑를멀게하고惡疫을防止、心身을爽快하게합니다

慰問袋에

皇軍勇士에게보내는慰問袋에는꼭寶丹을너어주십시요。惡疫豫防의 効果가커歡迎을밧습니다。

效力本位의護身懷中藥

寶丹 ホウタン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藥店에有함…

本舖 東京·大阪 守田治兵衛

朝鮮史를빗내는偉傑들의生涯!!

永遠한朝鮮文化의母胎와源泉!!

二回配本

朝鮮名人傳

第二卷

忠烈과義俠에타는놉은氣慨

그時代의太陽、巨人의자최

滿天下 待望裡에『朝鮮名人傳』一卷이發賣되자 全讀書界는 醉한듯미친듯本書의 發刊을歡迎하여 朝鮮出版界가잇슨후처음되는 部數를發賣하고 다시第二卷을發賣하는中이다 이로써 本書의價値가얼마나놉고 훌륭한것임을 잘알수잇다 朝鮮史上에太陽과가치빗나는 偉傑들의 노픈生涯와 偉大한 思想을 紹介한이 冊은 實로 朝鮮文化의母胎요 源泉이며 同時에이冊을 通하야우리 先祖들의 血管에뛰는 忠節과義俠의 氣慨를엿볼수가잇다 그리고놉고 勇敢하고 才操잇는그時代巨人들의 生活에 우리는 嘆服하고私淑하지안흘수가업다 支那의偉人과 西洋의偉人에 中毒된사람들은 반드시 朝鮮偉人을알고 朝鮮情調를 배우라 實로百卷의 冊을읽는이보다 이한冊을읽는것이 얼마나큰 有益임을잘알수잇다 무엇이니무엇이니하고 文化人으로 自處하면서도 牧隱이누군지 朴誾이누군지또는 退溪가누군지몰으는 사람들은 이冊에서 그대의 無識을 免하라。

內容目次

永樂大王	李丙燾
淵蓋蘇文	金庠基
王山岳	安自山
善德女王	文一平
金歆運	金庠基
金庾信	金庠基
階伯	金庠基
義湘	金映遂
慧超	洪淳赫
朴韓味	高裕燮
高麗太祖	玄相允
高麗文宗	玄相允
崔沖	李丙燾
李寧	李如星
鄭叙	李秉岐
安珦	李丙燾
恭愍王	高裕燮
李穡	黃義敦
成三問	金庠基
休靜	權相老
黃眞伊	金台俊
許穆	洪承耈
尹善道	趙潤濟
宋時烈	洪承耈
朴趾源	李昇圭
金弘道	高裕燮
柳僖	金允經
申緯	車相瓚
芙蓉	金台俊
李濟馬	李能和
金春澤	金台俊

讀書界의太陽 世專校長 吳兢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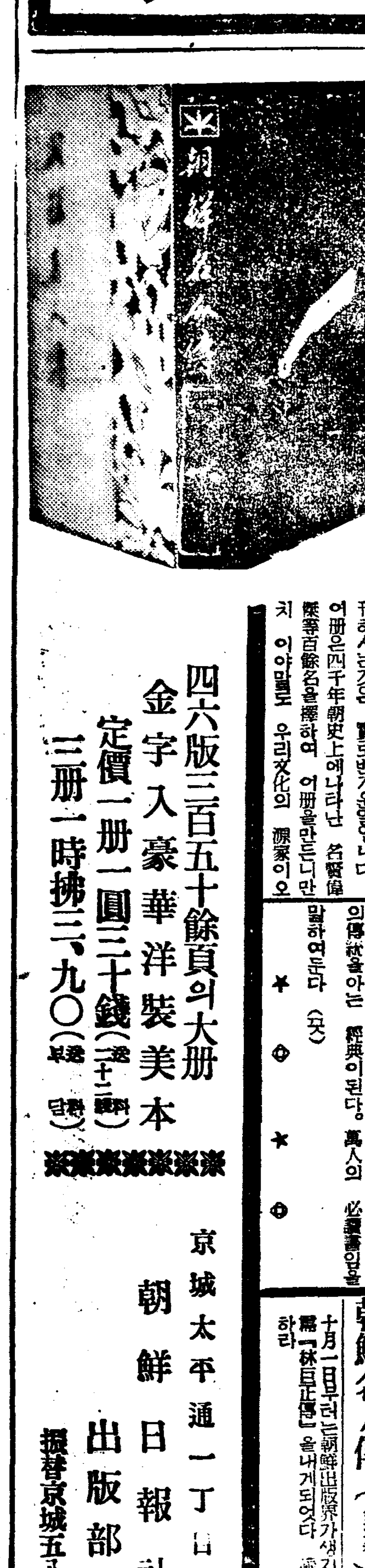
여러가지로 조흔書籍을出刊하여 朝鮮文化에 功獻이 만흔신 貴社에서『朝鮮名人傳』을發刊하시는것은 實로반가운일입니다。 이冊은四千年朝鮮史上에나타난 名賢偉傑等百餘名을擇하여 이冊을만든니만치 이야말로 우리文化의 源泉이오 核心이안일수업습니다。 책스피어나 홈스토이나 나폴레온이나 레닌등은 잘알면서도 朝鮮偉人과 朝鮮名賢을 몰우는사람은 반드시 이冊을보라 西洋中毒과 中華中毒을버리고 自己를읽는것은 自己의祖先과 自己의背景과 自己의傳統을아는 經典이된다。 萬人의 必讀書일을 말하여둔다 (矢)

四六版三百五十餘頁의大册 金字入豪華洋裝美本 定價一册一圓三十錢(送料十二錢) 三册一時拂三、九〇(送料不要)

本社發行 名著案內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上)	一、二〇	(送料十二錢)
〃 短篇集(中)	〃	〃
〃 短篇集(下)	〃	〃
〃 詩歌集	〃	〃
〃 戲曲集	〃	〃
〃 評論集	〃	〃
〃 隨筆紀行集	〃	〃
長篇小說 愛慾의彼岸	一、五〇	(送料一七)
〃 그의自叙傳	一、三〇	(送料一五)
現代朝鮮 女流文學選集	一、〇〇	(送料一九)
世界童話傑作集	八〇	(送料〇六)
結核豫防續本	七〇	(送料〇六)
新選文學全集 文學讀本	一、二〇	(送料一三)
〃 新人短篇傑作集	〃	〃
〃 朝鮮兒童文學集	〃	〃
〃 女流短篇傑作集	〃	〃
朝鮮家庭醫學全書	三、五〇	(送料三〇)
朝鮮野談全集 一卷	一、五〇	(送料一五)
〃 二卷	〃	〃
朝鮮野談全集 三卷	〃	〃
朝鮮名人傳 (全三卷)	에九月一日完結함	

十月一日부터는朝鮮出版界가생긴후처음되는大名篇『林巨正傳』을내게되엇다 滿天下讀者는期待하라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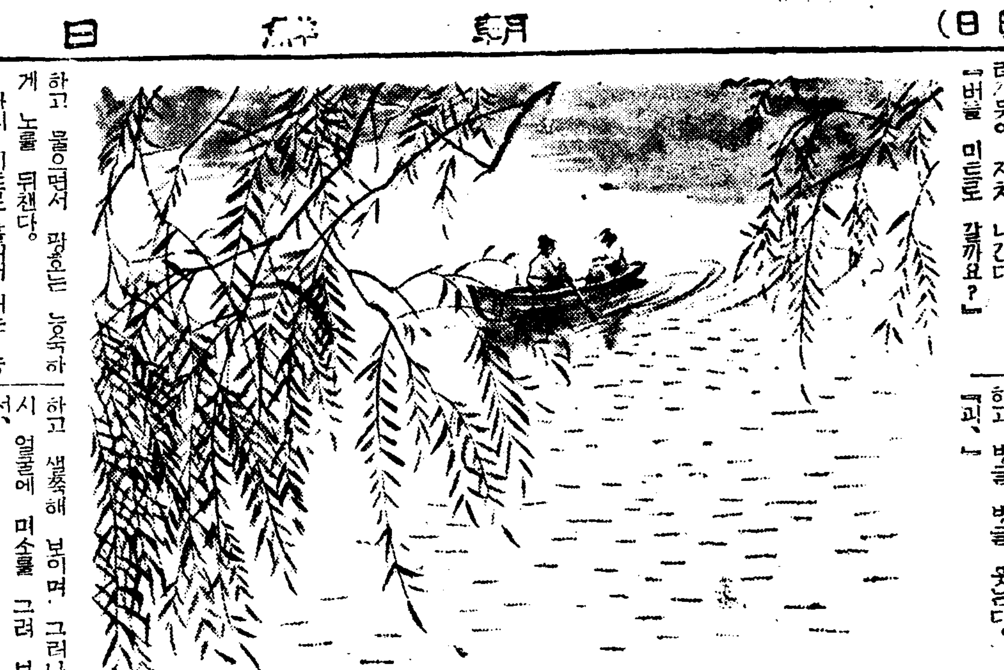
長篇小說

사랑의水族館 【9】

金南天 作 鄭玄雄 畵

白銀灘 (三)

경히는 양산과 『핸드뺵』을한 손에 겹처쥐고 『뽀-트』의 한 끗를 붓들어 주는대로 조심성 잇게 뙤뚝뙤뚝걸어 들어간다. 이편을 향하여 안는것을 본뒤 수건을 깔고, 가운데 자리에 에야 광호는 양복 웃저고리를 벗어서 배안에 너코 한편 배ㅅ전을 물속에 밀어 넣으면서 성큼 두발을 올려 노핫다. 강물은 절반이상이 산그림자에 더피어 잇섯다. 잔잔한 물우를 가벼운 『뽀-트』는 미끄러지듯이 지처 나간다. 『버들 미트로 갈까요?』



하고 물으면서 광호는 능숙하게 노를 뒤챈다. 다리 미트로 흘러서 배는 능라도와 반월도(半月島)사이로 기어 든다. 어죽(魚粥)노리를 나왓던 패거리도 얼주 가버리고 반월도에는 아레쪽에 매생이가 한척 부터 잇슬 뿐이다. 대동은 월편 수영장에는 아직도 천막이 저녁 해에 빗나고 잇스나 사람의 그림자는 어곳에서는 뚝뚝히 보이지도 안는다.

경히는새안경도 쓰지안코『핸드빽』과 양산을 무릅우에 두손으로 꼭 쥐고서 광호의 두다리가 버릇 업게 배ㅅ전을 누르고잇는 가운데에 가즈런히『산달』구두를 모두아 세웟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거더부친 꺼먼 두개의 팔이 노를 낙구채는것을 바라보고 잇다. 그는 비로소 사나이와 무릎을 맛부비고 마주 안잣다는것을 의식해본다.

(김광호는 아직 미혼지 인가?)

하는 의심이 머리에 떠 오른것이, 수상하엿다. 얏잡아 보아도 수물여닐곱은 낫스리라고 생각한다. 수물여닐곱에 독신자가 잇슬수 잇슬까?

(하기는 송현도는 내년이 삼십인데 아직 약혼도 안햇지만…어쩌면 김광호도 미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내에게 그런것이 무슨상관이냐?)

고 생각을 덜어 버린다. 사실 아무 상관도 업는 일이라고 이경히는 거듭 생각하여본다.

(송현도는 나와 결혼할 생각으로 여태 기다렷다고 자타가 한가지로 인정 한다. 그러나 자타가 한가지로 인정하는것 보다도 장본이인 이경히가 인정해야 되는것을 그는 잘 알고 잇다.

(이러한 판국에 김광호의 기혼, 미혼이 무슨 상관 일까?)

경히는 제의 한가되지 안흔 생각을 덜기 위하여, 광호에게 이야기를 걸어 보고십다.

『재기 이번 여행에 결심한게 한가지 잇는데, 김선생님 무엔지 아세요?』

광호는 버들이 느러진 아르로 배를 몰리며,

『복습이 아닌담에야 내가 어떠케 그걸 압니까.』

하고 벙글 벙글 웃는다.

『피、』

하고 샐죽해 보이며, 그러나 다시 얼굴에 미소를 그려 보면서,

『어디 마처 보서요、』

하고 다시 이야기를 건는다.

『못 마칠게 배얼안걸 무엇때문에 미련한 놈이 꾀 맛니까.』

광호의 대답에 경히는,

(사내는 능청맞기도 해!)

하고 생각햇스나

『아주 굉장한 계획을 하나 세웟습니다.』

하고 말하엿다.

『네에 거 그럼 굉장하시겟구려! 무엔진 모르지만……』

『아직 윤곽만 막연히 잡혓게 돼서 발표는 시기상조 랍구요.』

『그러시야죠. 그래야 더 굉장해 지시지.』

『아니 농말이 아닙니다.』

『저도 결코 농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뽀-트』가 능라도와 반월도 사이를 흐르는 여울물 줄기에가 걸려서 압뿌리가 핑 돌앗다. 광호는 어내 배가흘르지 못하게 노를 꼬지럿스나 흘런스는 몸의균형을 갓자기 일허버렷다. 두손으로 허겁지겁 배ㅅ전을잡아 『포-즈』를 바로 세운것은 조햇스나 그때에 양산과 함께 들엇던 『핸드백』이 풍덩 물속에 떨어졋다. 까만 가죽으로 만든『핸드백』은 몰이 피글 피글 도는데서 소리도 업시 가라안저 버린다.

『아이 어머니나、』

하고 경히 잠시 깜짝 놀랏스나

『내가 너무 까불엇서!』

하고 광호를 처다보며 오엇다. 노를 젓지안허서 『뽀-트』는 여울물에 휩쓸리어 한가이 나 흘러내렷다.

뚱뚱보마님좀보지

座席三人分을完全占領

悽凉한魯賓孫어디서잘까?

厥女매몰케도中年紳士를忌避하다

⑥ 文·寫·畵…金熊超

이등선실은 정원이 열명이다 잘은몰리도 배타는것은 차와달라 누어서가게 마련이 된듯시픈데 그러타면 행구나보행이를다치우고 말티갱이열사람이 다다미깔린듯 가로세로 누어야 겨우 드러마질까…. 여런것을 똥똥한 오까미상 한분은 아까배에오르며부터 야시장버린듯 잡자리를 버렷는데 트렁크 노코 가방노코 또 수박노코 사이다노코 그리고는『유까다』입은몸을 길게 뉘어 모두 세사람분이상의 자리는 넉넉히차지하고 잇다。그가 깔고잇는 담표에 한자리꿈 비집고들 여지는 잇겟스나 내가 그의 부군(夫君)이 아니며 말자(末子)가 아닌다음에야 그의 비만한 암가슴에차 허혼연히 잘들까닭이 만두다。그러나 지구진 생각이들어、『오상 오도나리에 네까시데모 라이마쇼-까네』 하고 상냥하게 물엇더니

『아라 마-!』하면서 누은채로 빤히 처다보다。미소년가 탓스면 이러케 겁도 안햇스련만 원낙 호벽진중년신사인지라 징그러운 생각도 풀어술께다。『고란노 도-리 입빠이 소뎃데이루노데 고노마마 닷데이루 와께니모 이깐시 네…』

나는 이러케 따한 혁편을 추서 생겻더니 부인께서는 시침떼세시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게시다。

『난닷다라 소노 모-후오 조또 가시데구레마생까 와다시간반노 호-에 리데 네데모 가마이마생가 ——』

『마、고노모-후 와다시 노몬요』

민사소송문제나 되는듯 벌떡 일어나 안즈며 소유주장을한다。

『지 소노 도랑꾸노 꼬도로와이깡아데스까 와다싱아 네데 소노우에에 도랑꾸나리 가방오 노까시데모 가마이마생까 란』

나는 지꾸만 추근추근히 군다。오까미상은 하는수 업는지 잠자코 담표를 머리맛쪽으로걸어올리고 가방과『트렁크』등속도 발끔우으로 일우올리니더발치자리를 손비닥만큼 남겨노코는 다리를 오그리고 다시 누어버린다。

——울리고 갓갈을 왜또와나
이왕지사 악거들랑 발치잠이나 자고가소

창부타령에이럼 노래도 잇고보니 나는 팔짜에없는 실연을 당한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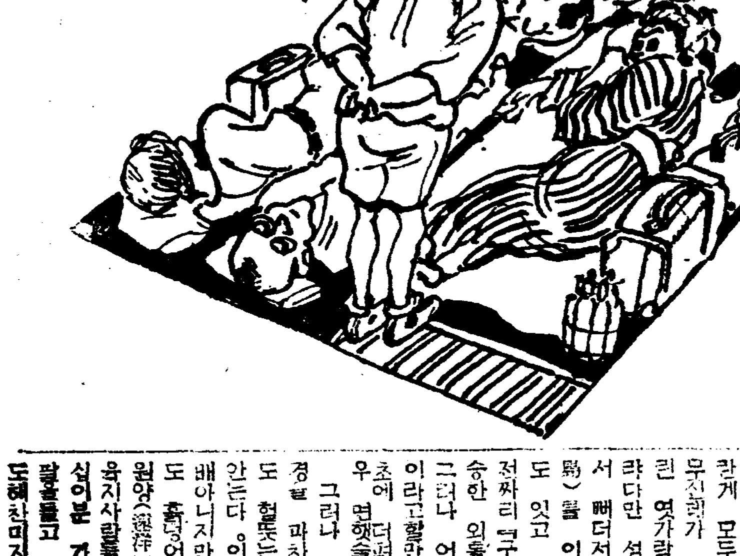
그자리에눕지니 서글프다。발끄린내를 마라가며 새우잠을 잘맛도 업거니와 허심탄회하고 누어잇다가 양심먹은 여성의발길에채어 무슨 참변이 생길지도 알수업는일이다。

『마 오망아이니 규-구쓰레쇼-까라 와다시 요시마스』

나는심기일전해서 모든것을 그부인에게 양보했다。…

그부인의 발뒤굼치야말로『레구홍』의 알처럼 생겻다

지-그드테 동행인엉치엇지는 어느구석에 뻬여잇기에 안보일까?필시 삼등표를 사거니해서 어선실 저선실을 뒤저보앗다배의뒤쪽으로 부인네들이 몰려잇는 선실의창넘어로 드려다보니 선생께서는 사쓰바람으로 좌중에안지 일장연설이 벌어졋다 나를 힐긋 보고도 본숭만숭연해 열을쩍 버리고 손꼬락끄트로 가리켜가면서이러쿵 저러쿵하는품여 벌써이해박는 외교를하는 요양이다 언지잇는 여자들어 모두 여연집네는 아닌 모양어나 뻬여오른지 불과 몃십분안에 수작을부처 그의 상략(商略)을 베푸는것을보니 여간한 농꾼이아니다。



『에-라 설컨해먹어라』

나는 외돌로 떨어져서 뱃머리쪽으로 갓다。

남산환은 어는새 바른편의 유달산을 바바쿠나 돌아 해수욕장 엽까지 어렴듯고 외편으로 그암바다에 가로노힌 고하도(高下島)의 병풍바위가 겨의다 진하게되엿다。말하자면 여기서부터가 목포 다도해의 출입어타는것이다。

다도해! 섬만흔 바다인것은 지도에도 보아서 안것이지만섬인지 유지인지 분가못할 산들이 솟솔이 달려잇고 겹겹이쌋혀잇서 내가 일찌기 머리에그린 풍경과는 딴판이다。나는처음생각에 끗업는 바다저편!이러한 생각으로 수평선을 그어노코 그아페 여기저기 그전모(全貌)를 볼수잇는 적은섬들어흐터저 잇스며 그리고 을비쪽빗한 그섬들 모통에처송이 시꺼머케 우거잇고 갯가 울퉁불퉁한 바위틈에는 물ㅅ결이다처힌 거품이 일뗘이며! 녀질하나마 이러케 표현할만한 풍경이 되어잇슬줄 알앗다 그런젠데 실상은 섬에 가려 어느편을 둘러보나 큰바다가 안내다보인다 섬과섬사이가 러질락락락하면다은섬하나이 또수평선을 가로막고나선다 그리고 섬들이한게 모두느리고 게을러빠저야무진장한가 한군데도업다 잡아는린 엿가락 모양으로 늘에, 나칼다만 설도 잇거니와 유지에서 빠더저나와 적은 반도(半島)를 이루어 섬인체하는 섬도 잇고 가다가다 군데군데 오전짜리『구리무』빵처럼 민둥민승한 외돌토리섬이업지도 안타。그러나 어느섬이고 모두 수목이라고할만한것이 업시 그저잡초에 더퍼 빨간 대머리만 겨우 면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여행하는 사람으로 옳경 파찬하는것은 용서가 돼도 험뜻는것은 도덕으로 치지 안는다。이 도덕을 구지 지킬배아니지만 몃날 몃수일이 가도 흉잡어리 한점 볼수 업는 원양(遠洋)여행가나 물이 귀한 유지사람들에게 다도해의풍광어심이분 가치잇슬것에는 나도두팔을들고 공정아니할수업스니다도해찬미지여 나들미와마소서

趣味와娛樂

漢陽映畵社第二回作 民村原作『新開地』近近完成

封切은드디어今秋로迫頭

얼마전에 제일회작품『귀착지(歸着地)』를 제작발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잇는 시내 한양영화사(漢陽映畵社)에서는 다시금 최근에 제이회작품 제작에 착수하여 오래지안허 완성을 보게되엇다는데 원작은 민촌(民村)이기영(李箕永)씨의『신개지(新開地)』로서 각색은 극작가 박송(朴松)씨가 담당하엿고 연출은 윤봉춘(尹逢春)씨며 촬영은 이신웅(李信雄)씨로서제작에는 김갑기(金甲起)씨음악에는 홍란파(洪蘭坡)씨가 각각담당하엿다한다。

(사진은『新開地』의一場面)

關屋敏子一行 演奏會

十一日夜於府民館

북지순회를마친『코로라추라』명가수 관옥민자(關屋敏子)양일행은 서울에들려서 십일일밤오후일곱시반부터 시내부민관(府民舘)에서 연주회를 열리라한다 이번연주곡목은 독창곡외에 가극춘희(椿姬)도들어잇는데 일행중에는 우리대구(大邱)출신이정희(李貞熙)군과 청진(淸津)출신 박효숙(朴孝淑)군이 각각이견민웅(異見敏雄)·영소로효(櫻小路孝)의 예명으로 출연하리라한다 (사진은본사를내방한 관옥양과박이양군)

라디오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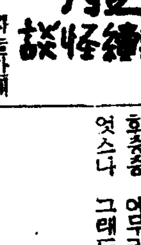
十一日(金)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獻法(가지장아찌)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二〇分 主婦時間『歌 靑춘은저의어머니』朴 景 天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話와童謠朗讀 一、童話 소금비로外五篇 二、童謠朗讀 어디만큼오-나外九篇 尹石重
▲同六時三〇分 作文朗讀(朗讀) 金 英 來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四〇分 野談『쉿長十尺』 度 秋 岡
▲同九時一〇分 京畿歌謠 一、敎枚歌 二、船遊歌 三、小春香歌 四、제비歌田山打令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番組豫告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實用英語會話(九) ▲午後〇時五分(大)모단小唄 ▲同三時(東)實況錄音 ▲同八時(東)管絃樂 ▲同八時四〇分(東)落語 ▲同九時(東)十分間演說

連續怪談



雪上布衣美人 ③

申鼎言

그러나 엄동설한에 차는한배 호것을 엽고도 아무러치 안케 눈을 밟고 가던양을 생각하매 깜직한 생각이 나며 그 화용월태와 낭랑한 음성이 한꺼번에 멀리 사러저 버리엇다。

그런데 그이튿날밤에 방문이 방그시 열리며 그 미인이 여전히 그 베것을 엽고 방안에 들어서며 황건중을 보고 빙그시 우섯다。

그 미인이 벙그레 웃으면서 방안에 들어선뒤 무슨 뜻인지 초대(燭臺)뒤에가 날라갈듯이안잣다。

그 안즌 태도는 꽃우에 옷두몸을 실린다비도 갓고 물우에 동실 뜬 오리도 가치 보이엇다。그 미인의 자태는 어디로 본든지 상원태가 업고 오직 지극히 단아하고도 수려한 양이 어즈버 한폭미인도(美人圖)언가 시펏다。

그리고 그입고잇는 베적삼과 베치마는 몰쏘록 고흐뭄이 아마도 십이승이 지나처 분명십육승 거든베이므로 잠자리 날개와가치 곱게보이는것이엇다。

그런데 그적삼밖가로 내비치는 살ㅅ결은 희고도 유태하빗이마치 백어(白魚)의 배때기와 가다 손을 대면 줄우룩 미끄러서 내려올것 가치 보이엇다。

그리고 치마허리를 겨드랑밋까지 칭칭 겨처서 처마 끈을 허리춤중 아무리 여러번 졸라매엇스나 그래도 적삼끄치 약간 들릴만큼 오동통하게 내밀고 그 한복판에 도톰하게 까므자작한 빗갈이 은연히 내비치는것은 순진한 처녀의 정동이로 보이엇다。

황건중이 그 미인의 그러한 자태와 그러한 살ㅅ결을 보는중에 특별히 무릅우에 곱게 언저노흔 쏙빠진 손길이며 나긋나긋한 허리는 과연 미인되겨이 한층더 노퍼 보이므로

『흥。과연 섬섬옥수(纖纖玉手)란 요 요요세요(嫋嫋細腰)란 말이 저런 손과 저런 허리를 두고 어른 말이군。』

하며 황건중은 그 미인의 전체를 모두 뜨더노코 보아도머리털끗 하나라도 미인격(美人格)에 맛지 안은것이 업섯다。

그래서 황건중은 몽롱한 정신으로 눈을감고 누어서 그미인의 화용월태와 눈빗가치 히고한 그살빗이며 수양버들가지가치 늘씬거리는 그 가는 허리 등속으로 그리다가 눈을 번쩍드매 그승세가 고흔 베옷이 두눈에 상큼하게 보이엇다。

황건중은 그 베옷이 두눈에 뜨이자 밧갓혀면을 보려고 창문을 왜 여러재키엇다。

이때 하늘로부터는 함박꼿송이가튼 눈이 어지럽게 쏘다저 고 땅우에는 쌓히고 쌓힌 어름이 달비체 번지어 빤짝거리며 앙상한 나무가지를 시처내는 바람은 휙휙 소리를 내어무엇이나 숨조하지 아니한것이업섯다。

倦(だる)さがとれる養命酒

노곤한것이 없어지는 養命酒

信州伊那·塩澤家傳·高山貴重藥草合釀

體內로수며드러 精根의基가된다

老衰、病弱體인분들은 疲勞되기쉽고 疲勞하면 몸이무겁다

노곤하다는것은 몸에 疲勞物質『老衰物』이생겨서 그때문에肉體와함께 神經系의休養을하고저하는 要求입니다。이것은 生理的要求이므로 執務를하고잇더라도 倦怠感이생긴때에는 疲勞物質이사라질때까지 쉬지안흐면안되는것입니다。

그런 때어떤사람은 오래동안激烈한일을해도 그다지 疲勞하지안는데 어떤사람은 조곰한일에도 곳疲勞를느끼여서 노곤하게되는것은 무슨까닭일까요。

그것은前者는반드시年齡이젊고 반드시强健體의분입니다。後者는年齡은젊드라도 病弱體던지 그러치안흐면外見은 强健해보이드라도體內에 어데던지故障이잇는 분이며老齡者입니다。

健康 體는 疲勞物質의解除가極히迅速하므로 노곤한것을느끼지안케되지만 老齡、病弱體는한번 疲勞物質이體內에 蓄積된때는 容易하게사라지지안습니다。

그러 한분들에게 꼭推奬하고 십흔것은 信州伊那의高地에서 釀造되는 養命酒는 무슨病을고친다던가 무슨病에 特效가잇다던가하는 極限된것이아니고 먹으면 먹는만큼含有되여잇는 高山貴重藥草의精力이 먹은 사람의體心에 수며드러서 언제인지모르게 弱한몸도나날이緊張되고 세때食事가입에달지안은분도 食事가입에달며 感氣들기쉬운身體도좀체로感氣에걸리지안케됩니다 어려하게 健康이回復되면 노곤한몸노곤한것이적어지고 事務에도 실증이업시 滋味를부치게되므로 일의能率도오르게될것입니다。

小瓶進呈

意外라할만큼好感을주는深山仙酒로서 芳香美味하여 飮用하기쉬운것을實物로 紹介하고저 養命酒試飮用小瓶을無代로贈呈中이니 東京市澁谷區上通り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곳葉書를보내주십시요。

全國의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有함 品切인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直前金으로送料不要代金引換은謝絶합니다

携帶用 一圓五十錢 / 大瓶 三圓 / 德用 四圓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釀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大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 澁谷二八四七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설사에

夏期의 설사!

昨今 과가티温度가놉고、濕氣가만케되면여러가지黴菌때문에飮食物에依한中毒을이르키는일이만습니다。그때문에大槪는下痢를이르키는데、이러한境遇지금까지는一般에下痢止藥과下劑를使用케되엇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下痢를그치게하면心身의苦痛과中毒症狀其他副作用을惹起하며、또下劑의濫用은衰弱、脫肛에걸릴念慮가잇습니다。이缺點을돕는安全한治療法으로서……

吸着 療法이잇습니다。아루시린錠은이吸着療法에依한最新의下痢治療劑입니다。아루시린錠의內服은腸內의有害細菌을殺滅하며、有害毒素를吸着하야解毒하는作用이非常히强大함으로極히少量으로合理的으로下痢를消退할수가잇습니다。

게다 가消化障碍를이르키는副作用이업는故로小兒나婦人도安心하고服用할수가잇습니다。

(適症應)單純性下痢、腸內異常醱酵、鼓腸、腸結核의下痢、赤痢、虎列剌、腸窒扶斯等의下痢、食餌中毒等

【價格】
一〇錠(三〇錢)
二〇錠(五〇錢)
五〇錠(一圓)
一〇〇錠(一圓八〇)
三〇〇錠(四圓八〇)

全鮮各地藥店에잇습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アルシリン錠
아루시린